

# 총선용 의대 증원이 아니라면



한용수의  
돌직구

22대 총선이 치러지는 4월 첫날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의대 증원 2000명은 최소한의 규모라면서도,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말대로 의료개혁을 위해선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첫 단추다. 그러나 지난 27년간 의대 정원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과계와 의대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고, 해당 인원은 현재까지 7000여명에 달한다. 다만, 이번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됐는지는 석연치 않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 담화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의료계와 많은 논의를 했다고 했으나 그 내용

을 살펴보면 의료계의 의견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던 시간이었다”고 했다.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건 정부지만, 의료개혁의 청사진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의 협의는 필수다.

정부의 대화 의지를 기대했던 의료계도 이날 담화에 대해 혹평하며 의정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향해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아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 논의 시기도 문제가 있다. 의대 증원 이슈를 총선을 앞두고 2개월째 이어가고 있어서다. 국민 대부분이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 해서 지금의 의대 증원 논의에서 여론이 정부에 박수만 치는 건 아니다. 이날 동아일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과반을 훌쩍 넘는 57.5%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의사들이 반발하며 벌어진 의료 공백에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절반 이상은 ‘증원하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할 중재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의대 증원 결정 이후 의대 재학

생들이 집단 휴학을 신청하면서, 새 학기 이후 의대 교육이 파행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휴학을 신청한 의대 재학생은 1만명을 넘어 전체의 54.5%를 기록했다. 전공의를 비롯해 지역 의대 교수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고, 일부 개원의도 집단휴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들의 불편과 불안도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은 정부가 의료개혁에 본격 착수했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미 각 대학 수요를 반영해 대학별로 증원 인원을 배분한 상태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를 정한 만큼 이를 되돌리기에 사회적 혼란이 크다. 정부도 의대 증원이 총선용 공약이 아니라면, 총선 이후에도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 지역과 필수 의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일이 우선이다. 당장 의대 입학 학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하고, 졸업 후 지역 의사로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등 후속 지원을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

/hys@metroseoul.co.kr

# 넷플릭스가 거대해질수록 그림자도 커진다



기지수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글로벌 OTT가 쏠아올린 공이 국내 방송·제작사의 위기로 돌아왔다. 넷플릭스와 디즈니+가 막대한 자본금을 투입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반면, 국내 제작사와 방송사들은 이들이 끌어올려놓은 제작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3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사와 제작사는 제작비 내역 중 단가를 하향 조정할 필요성 있는 항목으로 ‘배우 출연료’를 지적했다.

최근 드라마 회당 제작비는 15억~30억 원 수준으로 2019년 드라마 회당 제작비 5

억~6억원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국내 방송사 중에는 SBS가 드라마 제작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회당 15억원이 최대치다.

이에 반해 넷플릭스 시리즈 회당 제작비는 30억원을 훌쩍 넘는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경성크리처’ 제작에 1회당 35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출연료다. 과거 1회당 1억원 수준인 출연료가 크개는 8억원까지 상승하다보니 배우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늘어나는 제작비와 배우 출연료로 인해 기존 방송사와 제작사들의 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

배우들의 높아진 출연료를 맞춰줄 수 없는 데다 국내 방송 광고 시장까지 축소되면서 드라마 편성까지 줄어든 상황. 이에 방송·제작사에 투자가 줄어들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연간 드라마 제작 건수는 2022년 141편에서 지난해 125편으로 역성장했다. 올해는 이보다 더 줄어들어 100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드라마 제작이 줄면서 조연, 단역 배우들은 설 자리도 잃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향후 4년간 한국에 약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중 이익을 내고 있는 곳이 전무한 상황에서 넷플릭스의 국내 투자 확대가 방송·제작사와 OTT 시장에 악순환을 가져온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면 제작비의 110%를 주고, 지식재산권(IP)을 독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작비는 지급하되 향후 콘텐츠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모두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식이다.

/tree6834@

오늘의 운세 4월 2일 (음 2월 24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배우자의 과소비와 사치를 줄여보도록. 48년생 주변에서 주식 얘기가 끊이지 않는다. 60년생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를 먹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72년생 걷기 운동은 필수일 듯. 84년생 매너와 도덕을 지키니 내 마음이 편하다.



37년생 손님이 반가운 소식을 듣고 오니 하루가 즐겁다. 49년생 활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다룬다. 61년생 지치고 피곤한 날이나 결실을 이룬다. 73년생 밤중에 비단옷 입고 활동하는 격. 85년생 반려견과 나갈 때는 다른 반려견을 주의.



38년생 집안에서 경제에서 세대교체. 50년생 소질과 능력이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게 인간사회. 62년생 휴일 없이 종일 바쁘다. 74년생 변화의 바람은 불어오는데 갈피를 못 잡는다. 86년생 소풍을 하러 가더라도 사전 준비를 하고.



39년생 나이가 들어 요행을 바라다가는 큰코다친다. 51년생 경륜과 인생 지식이 갖추어져야 할 듯. 63년생 잘못에 대해 변경거리를 찾지 말자. 75년생 자신의 특기를 자랑으로 생각하나 별거 아니다. 87년생 골치 아픈 인연에 엮이지 말 것.



40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은 누구에게나 있다. 52년생 서두르지 말고 급할수록 돌아서 가자. 64년생 구름 속의 태양을 의심하지 말고 노력. 76년생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피서를 떠나 기분전환. 88년생 부부도 결국은 남끼리 만난 것.



41년생 자식에게 참을 만하면 참을 수밖에. 53년생 남은 기간 회사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구상하자. 65년생 남의 도움을 받으려 시비도 있다. 77년생 크루즈 여행이라면 미리 계획을 세워야. 89년생 시댁 관계에서 시누이와 다툼 예상된다.



42년생 시골로 가서 산다는 계획은 불편을 예상해야. 54년생 자녀 결혼 혼수 문제로 머리가 지끈. 66년생 나를 백설 공주로 착각하는 것은 위험을 초래. 78년생 연인에 앞서 부모님의 안부를 챙겨보라. 90년생 남자 역시 여자를 잘 만나야 한다.



43년생 운이 있으니 부동산거래를 해도 좋다. 55년생 워드 준비를 해야 내일이 기다려지는 법이다. 67년생 우물 속 개구리는 더 큰 하늘을 보지 못하고 도전하지 않는다. 79년생 유능한 선배를 만나지 않도록. 91년생 조상 천도제를 올려보라.



44년생 작은 흠이라도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주의. 56년생 인제가 쉬고 있으니 조직에서 손실. 68년생 강을 무사히 건넌다면 배도 소중히 간직. 80년생 시작은 안 하고 불평만 가득하니. 92년생 배우자의 남비백이 심한 가정사로 애가 탄다.



45년생 다정다감 지나치면 병이나 가족에게 잔소리를 삼가라. 57년생 재혼에 기대보다는 기술 습득하는 길을 찾자. 69년생 반려 아기를 키우려면 자급력을 확인해야 할 듯. 81년생 월급으로 살보충을 계약. 93년생 영 끝보다는 청약 저축을 가입.



46년생 운이 상승하고 있으니 집수리 일을 마무리. 58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해내는 날. 70년생 재혼자에게 기대를 많이 하면 서운함도 더 클 듯. 82년생 중매가 들어오니 선택을 해보라. 94년생 직장생활에서 배우는 실질적인 노하우가 감자.



47년생 건강할 육체에 건강함이. 59년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71년생 불평보다는 웃어야 복이 온다고 했으니. 83년생 상사에게 억지보다는 할 일을 하고 나서. 95년생 말을 만들어서 이간질하게 되면 꼭 그 화가 반드시 나에게 온다.



# 김상회의四季 팔자에 자손 점지

얼마 전 지인의 시부상을 연락받고 문상을 다녀온 적이 있었다. 코로나 때는 문상 가는 것도 어려웠으나 요즘은 언제 그랬던냐 싶게 다시 예전의 장례식장 모습으로 복귀했다. 조문실 옆으로 길게 놓인 조화는 가시는 분의 자손들이 사회에서 나름 한 몫들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습이었다. 정성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인사를 하느라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작 당사자가 임종을 맞으면 오히려 문상객의 수가 그만큼도 안 된다는 말이 있듯이 장례야말로 산자의 영향력이 더 발휘되는 현상이란 생각이다. 그러나 제사를 존중하던 우리 선조들은 성공하는 자손 훌륭한 자손을 그리도 염원했는지도 모르겠다. 한국의 출신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이거늘 젊은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의 성장 동력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전 세계 국가 중에 한국의 출신을 저조는 다른 나라들에도 경종이 되어가고 있다. 얼마 전 팔자의 지인은 베트남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거리와 백화점에는 부모 손을 잡고 나온 어린 아기와 아이들이 얼마나 많는지 주변이 시끌벅적하여 소풍이 어려울 지경이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렇게 아이들로 붐비는 모습이 부러웠는데 한국의 저출산율에 대한 걱정이 오버랩해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사주명리학에서 자손을 두는 운을 판별할 때 팔자에 자손궁이 건재해야 하는데 정편관이 아들에 해당하며 편관은 나를 극하는 음기운이라 하여 칠살(七殺)이라는 별칭으로 정의·定義한다. 칠살은 꺼리기도 하지만 아들이 잘되어 아버지 자리를 극하는 이론·理論은 타당·妥當한 것으로 “아들로 하여 극을 당함을 꺼리지 않는다.”라고 통·通된다. 단, 편관의 자리에 나를 도와주는 길신이나 희신에 해당하는 오행이 올 때 그렇다. 금의환향하는 자식을 두는 형국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학원

#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드의 열과열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5	8	4	1		
3		1			5 9 6
4				3 8 7	
			3	4	
		2	8		
	6	7			
9 6 3					1
8 1 5			9		4
	7	9	8		5

7	5	1		6	3			4
			4		5			6
	9	4						
4			2			3		
		8				1		
		5			6			9
						4	7	
1		3	4					
8		5 9		7	3	6		

QR코드  
할인도서

9	9	8	8	6	1	2	7	2
7	2	6	2	9	6	9	1	8
1	9	2	8	7	8	9	6	
8	7	2	9	2	6	9	8	1
8	1	9	8	9	2	7	6	2
6	2	7	1	8	8	2	9	9
2	8	8	9	1	9	6	2	7
9	6	9	7	2	1	8	8	8
2	8	1	6	7	9	8	2	9

9	8	2	1	6	9	2	7	8
2	6	9	7	8	8	2	1	9
8	2	7	2	9	1	9	8	6
6	1	8	9	7	2	9	2	8
8	7	1	6	2	9	8	2	9
2	9	8	8	1	2	6	9	7
9	9	2	8	8	7	6	1	1
1	9	6	9	2	2	8	8	2
7	8	2	8	9	6	1	9	2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0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50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metro** 메트로미디어